

# 영국 하원 브렉시트 연기도 노딜도 거부

### 메이 총리 '플랜 B' 수정안 표결 노 딜 피하고 안전장치 대안 추진 EU측 '재협상 불가' 즉각 거부

영국 하원이 오는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연기하지는 않고 유럽연합(EU)과 재협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순조로운 브렉시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소위 '안전장치'에 대한 대안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는 피하기로 했다.

그러나 EU 및 일부 다른 회원국들은 기존의 합의안이 "유일한 안이자 최선의 안"이라며 즉각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오후 향후 브렉시트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놓고 표결을 했다.

2주 전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부결시킨 하원의원들은 테리사 메이 총리의 '플랜 B'에 대한 다양한 수정안을 내놨고,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 총 7개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표결에 오른 7개 수정안 중 커다란 걸림돌이 돼 온 '안전장치'를 다른 대안 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안이 찬성 317표, 반대 301표로 통과됐다. 이는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의 주장이 제출한 것으로 가장 관심을 모았다.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정부에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노 딜' 브렉시트를 배제하도록 하는 안도 찬성 318표, 반대 310표로 통과됐다.

나머지, 합의안이 다음 달 말까지 의회

의 비준을 받지 못하면 탈퇴 시점을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하는 안이나 '노 딜' 브렉시트 방지를 위한 대안을 놓고 투표하자는 안, EU 잔류 지지가 많았던 스코틀랜드 지역은 브렉시트에서 제외하지는 안 등은 부결됐다.

결과적으로 영국 하원은 이날 '노 딜'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 대안 협정을 포함한 재협상을 추진하되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연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이 완료되자 "의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밝혔다"면서 "안전장치"에 변화가 가해지고, 노동권 등에 대한 협약이 있다면 브렉시트 합의안은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EU 측이 '안전장치'를 포함한 브렉시트 합의안의 재협상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메이 총리는 또 의회가 '노 딜'을 배제기로 한 만큼 이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만나 합의안 통과를 위한 방안을 놓고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대화 참여를 거부해 온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에게 다시 만남을 제의했다.

이에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와 만나 '노 딜' 배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코빈 대표는 일자리와 삶의 수준, 노동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는 브렉시트를 메이 총리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EU와 회원국 일부는 영국 하원의 표결 결과가 나오자 즉각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대변인을 통해 영국 의회가 '노 딜'을 피하려는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기존의) 탈퇴 협정은 EU로부터 영국의 순조로운 탈퇴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이며 유일한 방안"이라며 강조했다. /연합뉴스

## 中, 남중국해에 '해상구조센터' 설치 암초 피어리 크로스 현판식...실효지배 강화 노력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압축에 '해상구조센터'를 설치해 실효 지배 강화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30일 신화통신을 인용, 중국 교통운수부가 전날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샤[南沙]군도) 내 암초인 피어리 크로스(중국명 용수자오[永暑礁])에서 해상구조센터 현판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해상구조센터 설치가 남중국해 해역에서 항행 및 운송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자평했다.

그간 중국은 지대공·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군사 요새화하는 방식으로 피어리 크로스를 포함한 남중국해 주요

섬과 암초 실효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해상구조센터 설치는 주변국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앞세워 남중국해를 독식하려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등 주변 국가도 남중국해 주요 도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과 분쟁 중이다.

또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내 도서 영해에 자국 군함을 진입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남중국해에서 미중 갈등의 파고도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 다가고시마 화산 분화 연기 4km까지 치솟아

일본 서남부 가고시마(鹿兒島)현의 화산섬 구치노에라부지마(口永良部島)에서 29일 다시 분화가 일어나 연기가 4km나 치솟았다.

30일 일본 언론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3분 구치노에라부지마에서 화산이 분화해 화쇄류(火砕流·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가 화구 주변에서 600m가량 흘러내렸다.

기상청은 분화 경계수위를 3단계(입산 규제)로 유지하는 한편 화구 주변 2km 구역에서 분화에 따른 분석(噴石·용암 조각과 암석 파편)이나 화쇄류에 의한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섬에서는 작년 10월 이후 분화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작년 12월 18일과 지난 17일 분화가 일어나 화쇄류가 흐르고 연기가 치솟았다. /연합뉴스



일본 남서부 가고시마현 화산섬 구치노에라부지마에서 17일 분화가 발생, 화산재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분화로 연기가 최소 500m 이상 치솟았으며 화쇄류(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 현상도 관측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日, 7월 올림픽 앞두고 지진 대책 보완

일본 정부가 내년 7월 개막하는 제32회 도쿄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늘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방문객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아 초대형 지진대책을 보완했다.

30일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2014년 만든 수도(首都) 직하형 지진 및 난카이(南海) 해곡 거대지진 대책을 처음으로 개정해 외국인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육지의 얇은 지하를 진원으로 도쿄권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수도 직하 지진과 일본 근해의 난카이 해곡 일대를 진원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난카이 해곡 거대지진'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의 지진 발생 시나리오다.

공영 NHK 방송은 평소에도 두 지진 발생 가능성을 다룬 특집 프로그램을 방

영하면서 유사시의 대피 방법을 알려주는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보완 대책은 올림픽 기간에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사시에 피난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림문자로 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기상청이 발표하는 재해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서둘러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토교통성이 해외용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오기 전부터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장 주변의 대피소에는 구호용 비축 물품을 늘리는 방안도 넣었다.

일본 정부는 내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되는 올림픽 기간에 약 10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수도 도쿄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 개시...관세전쟁 마침표 찍을까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무역 전쟁의 종식을 두고 협상에 들어간다.

미국 워싱턴DC에서 30~31일(현지시간) 열리는 이번 담판에는 로버트 라이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협상단 대표로 나선다. 이번 협상의 핵심의제는 미국이 '기술

도둑질'로 규탄하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이다.

협상에 참여하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 장관은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이를 금지할 이행강제 장치 마련 등을 3대 핵심 의제로 밝혔다.

그 외에도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초래하는 양국의 무역 불균형, 중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위안화 약세 문제와 환율조작 논란도 의제로 포함됐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의 양보가 충분하다면 고율 관세가 전면 철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중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고

워싱턴서 이들 일정 개막 지재권 침해 등 핵심쟁점

을 관세가 철회되거나 추가관세가 억제된다면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연방정부 섣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해 미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추가 악화를 막으려 이번 협상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 /연합뉴스

## 美 중북부·오대호에 북극한파 극소용돌이

체감온도 영하 40도

미국 중북부와 오대호 연안에 이번 주 체감온도 영하 40도의 북극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다고 미 CBS 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맨피부가 5분만 노출돼도 심각한 동상을 입을 정도의 기록적인 한파 영향권에 직접 드는 인구가 약 10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한파의 원인은 이른바 '극소용돌이' (polar vortex)로 불리는 기상 현상에 의한 것이다.

극소용돌이란 북극 주변을 강하게 회전하는 소용돌이 바람을 말한다. 이 바람은 제트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을 때는 북극 주변에 갇힌 채로 회전 운동을 한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등 여러 이유로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극소용돌이가 남하해 북반구 중위도 지방까지 북극한파를 경험하게 하는 이례적인 기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사과기 기상청은 극소용돌이로 인해 25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이 관측됐다고 말했다.

오대호 주변인 미시간·위스콘신·일리노이주 일대는 최저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지고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갔다고 현지 기상청은 전했다. /연합뉴스

#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레스토랑 등등)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11억(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근린생활용도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좋은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감정/시세-11억
- 급매 - 8억

문의. 010-6834-7400